

투데이 칼럼

막걸리 병뚜껑의 비밀

여름철 땀 흘려 일하고 나면 생각나는 것이 있다. 시원한 막걸리 한잔이다. 흐르는 구슬땀을 닦아내고 막걸리 한 사발을 벌떡, 벌떡 단숨에 들이키면, 등가죽에 달라붙었던 배가죽이 펴지는 기분이다.

막걸리를 마실 때면, 어릴 적 기억이 떠오른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는 늘상 일터에서 돌아오면서 마을 입구에 있는 주막에 들러 막걸리 한 주전자를 들고 집으로 오셨다.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면서 시장기를 달래라고 아버지와 일꾼에게 술 한 주전자와 텃밭에서 따온 풋고추, 오이와 장독대에서 한 수저 퍼온 된장을 술상위에 올려놓았다. 마부에 걸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원스럽게 마시고 된장에 풋고추를 찍어 한입 물며 무더위를 이겨내시던 아버지 모습이 그립다. 어머니는 오후에 다시 일터로 나가시면서 새참으로 막걸리 한 주전자를 준비하셨다.

농민축산식품부에서 발간한 '2014

년 주류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막걸리 생산업체의 67.8%가 수입쌀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매출액 상위 10개업체 원료곡 사용 비율은 수입쌀 비중이 82.3%이다. 수출업체 상위 10개회사의 수입쌀 사용 비중은 73.2%이다. 쌀 재고가 많아 고민인데도 우리의 오랜 전통주인 막걸리 원료까지 수입쌀이 차지하고 있다.

막걸리 제조업체 825개중 426개소를 조사한 결과 100%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체 수는 5%인 21개소에 불과하다.

이런 실정인데도 막걸리가 우리 고유의 민속주라고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보자. 칠레에서 한국산 포도를 수입하여 생산한 와인을 칠레산 와인으로 판매한다면, 그 와인은 칠레산 와인일까, 한국산 와인일까.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수입한 쌀로 막걸리를 생산한다면 '한국산 막걸리'라 할 수 있을까. 막걸리는 한국 고유의 '전통주'이다. 그런데도 막걸리 제조업체에서 국내산 쌀 대신 수입쌀을 사용하는 이유는 원료 공급가격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공용쌀 40kg 고미(3년 보관) 가격은 64360원, 햅쌀 가격은 75000원 정도인데, 미국산 수입쌀은 21920원으로 국내산 고미 가격보다 66%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매년 40만 8700톤의 쌀을 외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한다. 수입쌀 대부분은 떡, 면류, 쌀가루, 주정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입쌀 처리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막걸리 병뚜껑에는 녹색, 흰색, 검정색 3가지이다.

녹색 뚜껑은 '국내산 쌀' 사용, 흰색 뚜껑은 '수입산 쌀' 사용, 검정색 뚜껑은 '쌀은 국내산, 밀은 수입산'을 사용하였다는 표시이다.

앞으로 쌀 막걸리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가공용 쌀 품종개발, 계약재배 확대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쌀 막걸리 제조업체가 늘어나야 한다.

오늘 저녁 친구들과 막걸리 골목을 찾아 파전에 막걸리 한 사발 기울이면서 한여름 장마철 무더위를 잊어보자.

막걸리를 주문할 때, 사장님! '녹색 병뚜껑으로 1병 주세요.'

성신상

농촌진흥청 전문위원

독자제언

가정폭력 없는 추석 명절을 기대 하며

비싼 일상생활속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그 중요성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국가를 위해 무엇보다 가정의 건강해야 한다는 이유 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핵가족화, 가족 대화 부재 등 가정과 가족의 의미가 점차 퇴색되고,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가정폭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경찰 예에서는 4대사회와 등 국민생활침해 사법 해결이라는 과제를 두고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4대사회와 이란 가정폭력·성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을 말한다. 이런 폭력 행위들은 마땅히 근절 해야 하고 더 이상 방치하면 이들에 의해 파생될 후대의 문제는 엄청날 것이다.

특히 가정폭력을 겪으며 자란 아동이 미래의 학교폭력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대물림현상' 이는 또 다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의

붕괴와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오히려 외부와 격리되어 일반적 폭력보다 훨씬 위험하고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가족이란 이름으로 숨겨지거나 용서도 쉽게 이루어지고 습관적으로 계속 되는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핵심이 되는 부부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이로 인해 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가정이 파괴된다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후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일들이 될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교육과 행복은 자녀들의 교육과 인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안전은 가정의 행복으로 나온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가정폭력을 비롯한 4대 사회악 등 국민 침해사범 척결에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 하여 이번 명절 예는 가정폭력 등 불상사 없는 명절 보내기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가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망해 본다.

배용욱 원산서희회파출소팀장

사위이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터널 통과 시 안전운행 요령 숙지를

최근 고속도로 터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대형사고로 이어져 마음을 아프게 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터널 통과 시 입구에서 주춤거리며 브레이크를 밟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운전자는 터널통과 시의 안전운행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안내 표지판과 가드레일 같은 안전시설물 및 과속을 제한하는 속도표지판 터널 진입 시 예고표지판 등 많은 시설물을 볼 수 있다.

터널 내에서의 고장이나 사고발생은 어둠과 갭길이 협소하기 때문에 매우 당황하게 되며, 교통량이 적은 때는 2차 사고방지를 위해 미연의 조치여유가 있겠으나 교통량이 많은 경우 터널내의 사고는 연속적인 추돌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하여 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연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자리에 있는 것은 위험하고, 물론 연쇄추돌 사고가 터널 밖으로 나가기 전에 발생되니 이는 매우 위급한 일이므로 그에 대한 예

방이 제일이다.

누구나 어둠과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갈 때 어둠과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 빛이 보이는 곳으로 빠져 나가려 한다.

그러나 터널진입 전에 미리 예고 표지가 있으므로 감속을 해야 한다.

진입할 때와 같은 속도로 달려서는 안 된다.

또 터널진입 전에 추월하는 차가 있는지 백미러를 통하여 확인하고 터널 내에서는 추월하지 않고 주행차선으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한다.

터널은 어둠이 때문에 색안경을 착용했다면 미리 벗고 뛰어드는 차량을 의식하고 예방차원에서 라이트와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터널 내에는 대부분 갭길이 협소하므로 진행하는 동안 주위에 신경을 끈두 세우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노면상태 등을 잘 보아 미끄럼에 주의하여 감속운행한다. 터널 밖으로 나 갈 때 밖의 노면상태나 터널 출구 주위 환경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류용욱 진안경찰서 부귀파출소장 경감

사설

서민 일자리 마련해야

전북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지금 서민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제 9월이라 날씨가 가을로 접어드는 때라서 하는 말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과 달리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 노무자들에게 밀바닥 일자리는 일용직조차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다. 그래서 오래전에 했던 말을 다시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오늘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 전북도는 예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그게 팩트와 맞았던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작 미취업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으니 말이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서로의 눈높이가 달라서 그럴 거라는 짐작이지만 전북도는 시중의 평가에 일회 일비해서는 안된다. 추석이 보름안쪽으로 다가온 지금 단 기간이라도 서민 일자리 마련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폐일연하고 일자리 창출이 관철된다면 전

북의 가난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보다 나아졌을 것이다. 따라서 인구 유출 현상도 그쳤을 터이다. 지금 지역의 현실은 보는 바 예전 그대로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부풀리기 식으로 발표한 것은 합당치 않다. 그 발표가 정직했다면 오늘날 어찌서 가난한 서민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해매겠는가. 일자리가 많아야 거주 인구가 불어날 터인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지 않다. 예전에 어떤 이는 전북 3백만 시대를 열겠다고 장담했지만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는 그게 당치도 않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실제 거주 인구하고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일자리 창출은 발표 몇 마디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서민 일자리 부족한 판에 일자리 성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제 더 이상 관행적인 발표로 서민들의 심사를 굶지 않아야 한다. 전북도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서라도 자체적으로 서민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다.

전북도는 지역 살림을 고민해야

전북 지역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궁핍하다. 전북도는 지역 경제의 앞날과 관련해 고민해야겠다.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궁핍한데 이대로 불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자립도가 37.8%에 불과하다니 말이다. 전국의 9개 광역도의 경우도 형편이 어렵다지만 그래도 우리 전북 보다는 낫다. 그 평균이 49.35% 라니 말이다. 지역의 현실을 보면 연일 빨간 불이다. 저번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소식도 있었고 현대차 전주 공장의 불량률도 그렇다. 예산 지원이 미미해 백년 먹거리라는 거창한 수사와는 달리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자고 어두운 소식만 잇따라 들리는 것인지 답답한 세월이다. 전북도는 지금 도민들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 도민들이 전북도에 게 주고 싶어하는 말은 분명하다. 자율적으로 쓸 재원이 없다면 살림살이를 보다 규모있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도 힘든 판에 지역의 큰 기업들마저 휘청이고 있으니 재정자립도가 나아질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전북도는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전북 경제가 동력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중앙정부는 가난한 지자체를 사살시 하고 있는 판이다.

전북도는 지역 기업들의 현실을 고민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 기업들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해볼 터인데 그러기는 고사하고 대량 해직 사태로 실업자들이 양산될 앞날이 걱정이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국책사업이 새만금 말고는 달리 없는데 새만금 내부 개발을 보면 지난 수년간 거북이 걸음이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큰 공감대를 얻고 시작한 탄소사업도 그렇다. 예산 지원이 미미해 백년 먹거리라는 거창한 수사와는 달리 손가락만 빨고 있는 형국이다.

다시 말하거나 전북도는 지역 살림과 관련해 그 역량 발휘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지역 경제가 비상에 들었는데 살림살이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된다. 저번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에 물 달고 있는 이들에게 비상한 각오를 주문했던 게 생각난다. 지역 살림 신호등의 빨간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작금이다. 전북도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